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폭력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전쟁과 환란 가운데서 구원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0월 21일 (토) 제 1942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이스라엘의 9/11: 도덕적 명확성이 필요한 때

온 힘을 다해 양쪽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보호와 치유, 위안을 기원하자

지난 7일(현지시간) 토요일, 가자지구에 본부를 두고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이슬람 테러 단체 하마스가 육해공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부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 이스라엘인 900명이 사망했고, 2,400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백 명이 인질로 잡혔다.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은 참혹하다. 아무 생각 없이 음악 축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지붕으로 아이들을 탈출시키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 테러리스트가 픽업트럭에 별거 벗은 여자를 태우고 행진하고 나이 든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총을 들고 하마스 군인과 함께 포즈를 취하도록 강요당한다. 다섯 살과 세 살 먹은 두 딸을 둔 젊은 여성이 인질로 잡혀갔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겪은 심리적 피해를 미국의 9/11 테러에 비유했다. 이는 홀로코스트 이후 하루 만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유대인 대량 학살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한쪽을 비난하는 사람은 당장에 내로남불이라는 반박에 직면할 것이다. “웃기고 있네. 이 건 어떤데? 너희가 저지르는 잔혹한 짓은 뭐가 다른데?”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동이 항상 흠잡을 데 없이 정당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 글을 쓰는 우리 두 사람은 친이스라엘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정부나 군대가 출범부터 오늘날까지 취한 모든 행동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좌절, 고통, 슬픔을 보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포함해서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게 다

피할 수 없는 범죄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도덕적 안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때때로 안개가 걷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저 없이 비난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도 모호함 없이 단호하게 비난해야 하는 유사한 범죄 행위의 명백한 사례이다.

기독교적으로 올바른 식별은 행동의 성격과 목적을 모두 다 살펴야 한다. 하마스가 단순히 민간인 인질을 잡았다면 그 행위는 그 자체로 악하다(성경은 납치를 금지한다). 그러나 납치의 목적에는 틀림 없이 어느 정도 군사적 정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름 가능하다. 과거에도 인질을 팔레스타인 포로와 교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마스는 단순히 인질을 잡은 것

이 아니었다. 군사 작전은 애초에 민간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민간인 희생자는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 민간인 자신이 표적이었다. 이 학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성경적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

#### 도덕적 명확성의 유익

정치적으로 분열된 교회를 목회해 본 사람이라면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라면 균형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양면을 제시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는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것을 명백한 목회적 실수처럼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덕적 명확성이 정당화되면, 큰 이점이 따라온다. (3면으로 계속)



### 이혼하겠다며 내세우는 다섯 가지 잘못된 이유

부부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

Forbes Advisor가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혼했거나 이혼 과정에 있는 미국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혼자 63퍼센트가 결혼 서약을 좀 더 잘 이해했다면 이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56퍼센트는 배우자의 도덕성과 가치관을 더 잘 이해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말했다.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이혼을 막을 길은 없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놀랍게도 불과 5퍼센트 미만이었다.

도 불구하고 자주 이혼의 이유로 인용되는 다섯 가지이다.

결혼의 신성함이 점점 더 위협받는 세상에서 이혼의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을 재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기, 학대, 또는 외도와 같이 성경에서도 허락하는 이혼의 사유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헌신과 가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만으로도 얼마든지 더 유지될 수 있을 관계도 꽤 많다. 다음은 결혼을 끝내는 합법적인 근거가 아닌데

1. 사랑이 식었다: 감정적 오류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사랑이 식었다”라는 생각이다. 문학, 영화,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 사랑 개념은 낭만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관점은 사랑을 주로 감정적 경험으로 오해하는 데 뿌리를 두며, 그 결과 성경이 말하는 헌신과 행동에 기반을 둔 사랑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가페인데, 이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4-7에서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3면으로 계속)

#### 도덕적 명확성의 가능성

죄 많은 세상에서 갈등하는 양쪽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는 건 당연하다.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이준수 목사



4면 청년들의 연약한 이길호 목사



7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견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éru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발행인 칼럼

잃어버린 것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며칠 전 뉴욕 앨리폰드 공원(Alley Pond Park)의 한모퉁이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진 노래가 있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뭇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매년 가을 이맘때 즈음이면 필자가 속한 노회 회원 부부의 야외 예배가 있곤 했다. 올해도 그런 시간을 가지며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날 전체 사회를 보시던 서기 목사님이 노회장 목사님께 노래를 청하였다. 그때 모든 이의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던 찬송의 가사이다. 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해 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 가사를 음미하며 깊어가는 가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이며, 그것에 애달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근자(近者)에는 읍처럼 소중한 것들을 잃은 것은 없다. 떠나는 조카 룯의 등을 바라보아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크나큰 상실감도 없다. 그런데 왜 "잃어버린 것들"이란 노랫말에 감정이입(感情移入)은 큰 것일까? 앞으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때문인가. 어른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하룻밤 잠을 자면 충분했던 피곤에서의 회복도 며칠 더 늘어난다. 그리고 보니 아주 얼마 전, 같은 교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청년 때까지 신앙 생활을 같이 해왔던 한 살 아래의 후배가 천국으로 떠나기도 했다. 건강(健康)하고 이목구비(耳目口鼻)가 뚜렷하여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던 후배였다. 그런 후배가 떠났다면 그 누구도 떠나리라.

아내에게 묻은 적이 있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지?" 서글픔을 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었던 질문에 내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은 것이 많아요." 아내가 측은히 여기며 "신경을 쓰는 것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라고 동조해 줄 줄 알았건만 생뚱맞은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다. 살다 보면 내게 있던 것들, 하나둘씩 계속 잃게 된다. 그것들을 애달파하다 보면 인생은 온통 슬픔뿐일 것이다. 잃은 자리를 둘러보면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 나의 생명, 귀한 가족, 교회, 일, 등 오늘 안에 남은 것이 많다. 은혜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친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잃어버린 자리에 남은 것도 있지만 새롭게 얻는 것도 있다. 신학생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있었다. 빗쟁이가 그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안타까움을 토로(吐露)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따랐더니 기름이 계속 그 그릇에 부어졌다. 노회장님의 찬양이 있었던 노회 야외 예배 때에 연세는 많으시지만 가장 강력한 색상의 옷을 입으시고 모든 이의 찬사를 받으셨던 귀한 사모님이 계셨다. 우리 노회에서 연세 높으신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신 후, 홀로 오래 지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아내요, 우리 노회의 새 선물이시다.

거룩한 습관을 지닌 젊은이가 되라

나는 목사이고 직업상 책을 읽는다.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 말 그대로 수많은 책을 구입했다. 사무실과 집, 심지어 침실에도 책으로 가득하다. 산 것도 있고 선물로 받은 것도 적지 않다. 내가 J. C. 라이이 쓴 Thoughts for Young Men(하나님의 청년에게)를 샀는지 선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을 사용하여 나를 영원히 변화시켰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나는 라이이의 이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공유했다. 책 내용 전부를 좋아하지만, 특히 "젊은 남자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그들의 현재 모습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제목이 붙은 장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십 대의 나는 그 내용을 읽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젊은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는 현재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젊은이가 너무



죄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갈망이었다.

죄성에 찬 습관에서 도망치라

살은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점점 더 죄에 얽매기

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라!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죽음으로 이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이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다(빌 3:8). 그러므로 죄로 이끄는 죽음의 습관을 버리는 데 있어서 만큼은 그 누구도 너무 급진적이라는 말을

젊은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는 현재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

많다. ...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습관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습관의 뿌리는 깊다. 죄가 일단 당신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명령한다고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습관이라는 사슬은 마치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다. ... 나무와 마찬가지로 습관도 나이가 들면서 강화된다. 어린 참나무는 어린아이처럼 쉽게 구부러지지만, 다 큰 참나무는 장정 백 명이 달려 붙어도 못 뽑는다. ... 선한 습관이나 악한 습관이 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시간을 점점 더 많이 보낼 때, 당신과 천국 사이의 벽은 더 높아지고 두꺼워진다. 건너야 할 물은 더 깊고 넓어진다. 날마다 죄에 머물러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제 죄에 관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이다. (Thoughts for Young Men, 15, 17-18)

라이이의 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거룩한 습관을 기르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붙이셨다. 하나는

마련이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행여라도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죄에 빠질까 두려웠다. 라일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지혜를 구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책임과 실천이 밑바탕이 되는 진정 투명한 관계와 우정을 발전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전의 최악된 습관과 타협하기보다는 피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나이 많고 지혜로운 신자들로부터 조언을 찾아서 들도록 선하게 인도하셨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꽤 나이를 먹은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주변에서 젊은이들을 찾아 이 진리를 가르치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가는 죄에 굴복한 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데에 달렸더라(롬 6:1-2; 살전 4:1-8).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가혹하다고, 또 거부하기에 죄는 너무 달콤하다는 거짓말을 젊은이의 귀에 속삭이

할 수 없다(마 5:29-30; 골 3:5).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습관이 가진 성결케 하는 힘을 내게 가르치기 위해서 라일을 사용하셨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성결함이 가진 역동성을 경험한다. 어떤 습관을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 마련이다.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에 부채질하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바로 눈앞에 두는 은혜의 수단이다. 간단히 말해서, 성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을 체험하려는 내 속에 타오르는 열망을 불어넣으셨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었다. 그 결과 아무리 중요한 학교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눈앞에 있어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가와도, 나는 점심시간이면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었다.

(12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The Bank of Princeton
5.20% APY\* 18 Month Certificate of Deposit¹
4.60% APY\* Premier Money Market Account²
On Balances Over \$50,000
3.00% APY\*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³
On Balances Over \$50,000
www.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 이스라엘의 9/11: 도덕적 명확성...

(1면에서 계속)

#### 1. 도덕적 명확성의 일반적인 이점

진 엘슈타인(Jean Bethke Elshtain)의 관찰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인 사망과 고의적인 살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형사사법제도는 붕괴될 것이다. 만약에 전투원 살해와 평화로운 민간인을 겨냥한 살해 의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도덕적 허무주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한 회색 음영으로 전락한다. 그 결과 우리는 정치적이고 도덕적 태도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별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이 방식에 근거해서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다. 카타르 외무부 등 일부 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아랍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종류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외교 정책에 관여하거나 중동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용하다.

현재 갈등에 대한 도덕적 명확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미국과 좀 더 밀접한 사건에 대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분별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잘 갖추게 된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도덕적 통찰력은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당시에 증거가 모호하다고만 생각하던 나치즘의 가면 아래 숨은 공포를 똑똑히 보게 만들었다. 그의 강력한 도덕적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꼭 알아야 할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함으로써 본회퍼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자.

#### 2. 도덕적 명확성의 구체적인 이점

도덕적 명확성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명령을 만들어 낸다. 비정치적인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악한 자를 그들 중에서 쫓아내라”(고전 5:13)고 요구했다. 구절 속 문맥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고(1절), 그로 인해서 그는 지역 교회에서 파문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명확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에 필요

한 명령을 내린다. 일요일 뉴욕시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집회에서 행진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점거되면 저항은 정당하다”고 외쳤다. 그리스도인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민간인을 향한 고의적인 학살을 옹호하는 그러한 종류의 집회(또는 그에 상응하는 소셜 미디어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변호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옹호하는 것(살인, 강간, 납치를 “저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방식이 아니다.

동시에 도덕적 명료함을 한쪽을 위한 적절한 기도를 하도록 한다. 우리는 하마스의 조속한 패배를 기도해야 한다. 하마스의 살인적인 작전실은 결코 가자지구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좋은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양쪽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즉, 그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다. 더불어서 그들의 보호와 치유, 위안을 기원하자. 그리고 양국 국경 안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이처럼 양방향으로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테러리즘에 빠진 한쪽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패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더 담대히 간구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by Bernard N. Howard·Ivan Mesa, TGC

### 이혼하겠다고 내세우는 다섯 가지 잘못된 이유

(1면에서 계속)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다. 사랑에는 선택의 의미가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보다는 결정의 문제인데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단순한 선택이란 의미는 아니다. 존 파이퍼의 말이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선택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이 갖춰야 할 모습을 제대로 드러낸 게 아니다.” 파이퍼의 지적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의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결혼의 유대를 유지하는 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

#### 2. 불일치: 완벽한 짝에 대한 신화

현대 시대가 제공하는 가장 파괴적인 개념 중 하나가 ‘소울메이트’ 또는 ‘완벽한 짝’이라는 환상이다. 일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개인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죄인이므로 다 각자의 뒤에서 결함이 있고 부서진 상태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불완전성과 불일치는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우리는 소울메이트가 아닌 희생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모델이다. 결혼생활에서 부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선호,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유익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난과 불편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이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25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희생적인 사랑은 불일치가 이혼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한다. 도리어 불일치야말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직관에 반하는 현실이 알려주는 사실은 종종 필요한 희생을 치른 후에야 진정한 일치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일치란 갈등 없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건 발견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당신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뤄야 하는 목표이다. 바로 로마서 12:18에 나오는 바울의 이 권면을 따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결혼했다면 이 권고의 수행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배우자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즉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경제적 갈등: 일시적인 관점과 영원한 관점

결혼생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게 재정적 어려움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임은 사실이지만, 이혼의 구실로 성급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현세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도록 돕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

금전의 어려움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그 뿌리는 부패하기 쉬운 물질의 부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있다.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모으는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친히 경고하셨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썩이 먹고 녹이 슬어서 땅가지며, 도둑들이 훔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마 6:19). 결혼 생활의 초점이 물질의 축적에 있어서는 안 되며, 사랑, 충실함, 영적 성숙과 같이 관계가 함양해야 할 영원한 가치에 맞춰져야 한다. 부부가 직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은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이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욱 밀접하게 맞추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정의 어려움은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만족과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바울은 빌립보서 4:11-13에서 모든 상황에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썼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만족이다.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충고를 하나 마나 한 순진한 소리라고 너무 성급하게 일축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재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채택하고 현세적 관점을 영원한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결혼의 유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 나간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다.

#### 4. 개인적 행복: 나 중심의 접근 방식

1970년대 이후로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가 미국 문화를 지배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행복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시사하는 미디어, 문학, 심지어 많은 세속 심리학 이론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가진 문제점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결혼생활에서 요구되는 상호의존성까지 적극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4면으로 계속)

### 시론

## 인류역사(歷史)는 하나님의 역사(役事)이야기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말씀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대대적인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시작된 이 지역의 전쟁소식을 접하면서 국가간 전쟁 이야기보다는 오래된 민족 대결구도로 해석되는 이 전쟁의 뿌리를 성경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기구한 운명은 B.C 1876년부터 430년간의 이집트 포로생활, 그 후 B.C 722년부터 바벨론 포로, 그리고 A.D 73년 로마에 의해 팔레스타인 땅에서 축출되어 떠돌이 민족으로 살다가 1947년에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할하도록 결의한 UN의 181호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로 공식 선포됨으로써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갖게 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민족간 갈등과 충돌, 전쟁. 그러다가 이번에 하마스 단체의 집중공격과 이스라엘의 즉각 보복으로 또 다시 전쟁의 화염과 공포에 휩싸인 이 땅은 그야말로 지도에서 보면 손바닥만한 지역이지만, 이 두 민족의 문제는 중동 전체의 종교적, 민족적, 국가적으로 오랜 역사와 함께 한 원한 관계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민족들의 조상들을 소환해 역사를 되짚어보며, 선민과 이방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등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곤 한다.

한마디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선민(選民)이 아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전 민족의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민인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예루살렘과 예수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얼마나 예수를 거절하고 무시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관련한 모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시 시작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치열한 민족전쟁을 어떻게 풀 어낼 수 있을까? 최첨단 무기가 해결할 수 있을까, 강대국의 중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한쪽의 포기해결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전쟁의 포화소리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마지막 결론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여다본다. 불타다(burning)는 뜻의 소돔과 침몰하다(sink)라는 뜻의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발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창 19:25)고 기록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 자체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완전한 멸망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 명이 있었다는 점인데 그 중에서 롯에 대해 성경은 ‘롯이 거주하는 성을 앞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앞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창 19:29)’고 기록하고 있다. 한 국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전쟁의 판단자가 되어 어느 쪽이 이겨야하고, 어느 쪽이 불쌍한가를 따지는 것보다 즉,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냐,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이 절망적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참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 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인류는 역사(歷史, history)를 써내려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役事, work of God)를 진행해가실 뿐이라는 사실 앞에 더욱 겸허해져야 할 시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창립 42주년 기념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 임직 예배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33분의 임직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장로장립** 박형선 김한보 장인순 이세학 경기욱 장인하 오세진 허만혁 조남수

**권사취임** 이현주 이수경 서상에 장기백 김순영 이미영 이선우 윤옥정 김금숙 문봉애 나선희 고수지

**집사안수** 이철수 장건희 안형철 백훈석 구자선 배현수 권민진 홍정길 김유장 채영중 이인선 김재운

일시: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제 1 예배실

창립 42주년 감사

선교사

제3대 목사

## 재파송 및 위임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담임목사님은 재파송 받고 다시 선교지로 향하시고 제3대 담임목사님 위임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재파송** 백운영 목사

**담임목사위임** 정승환 목사

일시: 2023년 11월 19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제 1 예배실

※ 화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가문

이태리 역사를 살펴보면 가문들의 경쟁은 대단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고 패권을 손에 쥐려는 전투적투쟁이었다. 로마에서는 콜론나와 오르시니 가문,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도 네피스와 휘유미 가문이 늘 대결하였기에 성 프랜시스도 평화를 줄기 차게 외쳐야 했다.

피렌체에서 은행업에 종사하던 피치(Pizzi) 가문은 후발 주자인 메디치 가문이 실권을 쥐

고 독단적으로 통치하자 불만을 가졌다. 그런 상황에서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이몰라를 매입하기 위해 메디치 가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 결국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몰라가 피렌체와 베니스의 교역로에 있었고 메디치 가문도 매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렌체 대주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메디치의 실권자 로렌초는 자신의 처남을 그 자리에 임명해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했는데 이유는

피사와 피렌체를 병합하려는 교황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대주교 살비아티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로렌초가 부임을 거부하자 살비아티는 로마에서 3년 동안 세월만 허송해야 했다. 이런 일로 양심을 품게 된 교황은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고 자신의 조카를 그곳의 군주로 세우고자 음모를 꾸몄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한 하마스의 작전처럼...

1478년 4월 26일, 1만 여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피렌체의 대성당에서 미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음모를 실행했고, 메디치 형제가 공격을 받아 시저처럼 온 몸이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으나 형 로렌초는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런 잔인한 상황을 목격한 피렌체 시민들은 흥분하여 공모자들 80여명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 처형했고, 주동자 살비아티

대주교도 높은 창문에 목을 매달았다. 또한 콘스탄티노플로 도망쳤던 주동자도 몇 년 후에 소환하여 처형했다. 거사가 실패하고 자신이 신임하는 추기경까지 잔인하게 처형당하자 교황은 크게 분개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 나폴리와 동맹을 맺었고 주변 도시들을 동원하여 피렌체를 침공했다. 피렌체에 성무 금지를 선언했고...

피렌체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로렌초는 우방국인 밀라노나 볼로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국의 사정으로 어려웠다. 피렌체는 이미 많은 전투에서 패했고, 국토회복하고, 도적들이 횡행하고 역병까지 찾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로렌초는 죽기를 각오하고 혈혈단신, 배를 타고 적진 나폴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음흉한 나폴리의 왕 페르디난도와 협상을 벌였다. 무려 석달간을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과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동원하여 교황의 잘못된 통치에 대

하여 설득하였고, 결국 강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

교황은 나폴리의 배신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기분이 상했지만 성무금지를 철회하고 피렌체와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일로 로렌초는 일약 피렌체의 영웅이 되었고 강력한 통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 은행업의 한계를 느낀 로렌초는 아들을 추기경으로 세우고자 결심했다. 한편 교황 식스투스 4세가 1484년 선종하자, 로렌초는 유순한 키보 추기경을 교황 후보자로 후원하였다. 결국 그가 교황에 뽑히게 되었으니 바로 인노첸트 8세다. 로렌초는 메디치 가문의 15살 된 막달레나를 38살인 교황의 사생아 키보와 정략결혼을 주선했고 두둑한 지참금도 잊지 않았다. 이런 노력으로 로렌초의 처남 요한이 16세에 고대하던 빨간 모자를 착용하는 추기경에 서임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푹푹하기는 하나 최

교로 사치스러웠다고 평가받는 메디치 가문의 첫 번째 교황 레오 10세다. 그는 교황이 되자 부모 없이 불쌍하게 성장한(파치의 음모로 죽은 로렌초 동생의 사생아), 조카 줄리아노를 추기경에 서임하였고, 후에 그는 추기경들의 쫓은 상서부원장(교황청의 재정 담당)이 될 수 있었다.

그 당시 정부(精婦)의 자식은 추기경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출생부터 미적지근한 자를 하나님의 대리자의 후보인 추기경에 보임하는 것은 양심이 저당 잡혀야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문을 일으키려는 거대한 욕망에 양심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없었을 터! 추기경이 된 그는 후에 클레멘티 7세 교황의 자리까지 제쳐게 되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교황 좌를 꼭 움켜쥐었다. 쥐가 나도록,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통을 까부수고 교황 최초로 수염까지 길렀다. 위대한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



오늘 읽은 마태복음 8:5~13 절은 한 백부장의 겸허하고 신실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로마군대를 지휘하는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니 그를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을 방문해 하인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시니 백부장은 예수님의 방문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저 '말씀 한 마디만으로'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크게 감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를 칭찬하시며 그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누가복음 7:1~10에서도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백부장'은 고대 로마 군제에서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로 당시 로마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방에 주둔했던 군인입니다. 지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일본군들이 그랬듯이, 대부분의 로마군 장교들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살상하며 억압, 착취하는 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특이하게도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그것도 로마당국에 의해 사상과 행동이 불순한 정치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젊은 랍비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 사 랍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이 사람이면 나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겠다'란 생각에 주변의 굽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이 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누가복

서도 말했듯이, 로마군을 지휘하는 현역 장교로서 로마에 대항한다는 정치범, 반역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 겸허한 자세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 담대함이 아니 고서는 감히 하기 어려운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지만

기 집에 오시는 것이 너무 황송해 감당할 수 없겠다며, 군대 상관인 자신에게, 또 본인이 휘하 병사들에게 이리 오라. 명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단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종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지극히 겸손하고도 강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최대한 예우하며 그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으면 "내가 이토록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니 다른 집은 못 가도 우리 집에는 꼭~ 오셔야지요! 오셔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비록 이방인일지언정 천국에 올라 큰 복을 받게 되지만,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을 예언하십니다.

백부장의 경우처럼 우리 역시 마음에 절실한 바램이 있을 때 이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

해달라거나 불편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에 장에 속에 몸부림치며 고통과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더라도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부족하거나 저의 최선만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저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했습니다. 지금껏 50년 넘게 살면서 힘들고 아쉽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저는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모두 받았다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은 제가 올린 기도 이상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같은 삶을 살고 삶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실제 삶이 따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 괴리되지 않고 일치하는 곳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방언으로 율왕거림이 간절히 기도해도 평소의 삶이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고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려드리는 바로 그 기도와 같은 진실되고 겸손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당신 종이 끝 나으리이다! 지금 이 시각 당신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나타날 줄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백부장의 겸손하면서도 진실된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uperman112068@gmail.com

#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 마태복음 8:5~13

을 7장에서는 백부장 본인 대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장로들은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며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어야 한다고 간청한 것으로 보아 비록 백부장이 점령군 장교지만 식민지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함,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입니다. 그는 자기 가족, 자신의 피붙이가 아닌, 집에서 부리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고대사회에서 종이나 노예는 개인 재산, 사적인 소유물로서 사람이 아닌, 가족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은 참으로 특이한 경우입니다. 더구나 앞에

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겠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도 다 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나오려면 그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세상의 보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의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원수의 나라 로마 제국의 군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으니 예수님이 감탄하시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부장은 더욱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감동시킵니다. 백부장의 집을 방문해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예수님이 자

조! 안 그러면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래요!"라며 온갖 때를 다 쓰며 예수님께 강하게 요구할 텐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바램을 진솔하게 간청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이런 놀라운 믿음에 예수님도 깊이 감동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시며,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자리에서 당장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지만, 유대인의 원수 로마제국의 군인인 백부장은 예복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습니다. 백부장의 집을 방문해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예수님이 자

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보다는 그분의 뜻과 섭리를 겸손히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아 응답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드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 해주지 않을 때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꼭 이루어만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시며,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자리에서 당장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지만, 유대인의 원수 로마제국의 군인인 백부장은 예복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습니다. 백부장의 집을 방문해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예수님이 자

세상 표준에 기초한 결혼생활의 활력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께 의지하고 성경에 설명된 원칙을 받아들여라. 그렇게만 한다면, 다시 뜨거워지는 사랑, 새롭게 구축되는 신뢰, 그리고 잃었던 고 생각했던 깊은 친밀감까지 회복하는 게 가능하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다. 이것이 복음 중심의 결혼에 대한 소망이자 약속이다.

by Joe Carter, TGC

## 이혼하겠다고 내세우는 다섯 ...

(3면에서 계속)

성경은 삶과 관계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접근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서사를 제공한다. 빌립보서 2:3-4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상호 복종과 자기희생이 참된 번영의 비결인 결혼생활에서 이 원칙은 특히 더 잘 적용된다(엡 5:21).

세상이 주는 행복은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느헤미야 8:10은 "여호와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나라"라고 말한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서 오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이다.

5. 지루함: 안주가 주는 위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안주는 종종 서로를 향한 관심과 열정의 부족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건강한 결혼생활에 필수적인 친밀감과 신뢰의 유대를 점차 약화시킨다. 안주는 지속적인 양육과 소중히 여기며 의도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성경적인 결혼 모델과 정반대이다(엡 5:29).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서 지루함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의 하나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여정에 참여하는 부부는 평범한 일상을 초월하는 목적의식과 방향을 발견할 것이다.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각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관심도 함께 커질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새뮤얼 존슨의 말이다. "런던에 사는 게 지친 사람은 인생에도 지치게 된다. 왜냐하면 런던에는 삶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도 마찬가지이다. 배우자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인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과 점점 더 닮아간다고 생각

해 보라.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지루함을 느끼겠는가?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각종 결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 중심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살아있는 은유 역할을 한다. 일시적인 만족과 피상적인 약속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복음에 기반을 둔 결혼은 소망의 등불이다. 결혼은 단지 사회 계약이 아니라 신성한 계약이며, 무엇보다 그 계약에 가장 많이 투자한 신 분이 하나님이다. 부부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갈 때, 그들은 감정적 거리, 재정적 스트레스, 불완전한 등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공동 희생의 만족, 그리고 믿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발견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복음은 더 나은 이야기를 제공한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선택이다. 그 사랑이 기초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도 이해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것 안에는 세상이라면 일찌기 포기했을 수도 있는 결혼의 가능성과 회복, 심지어 제2의 신혼까지도 포함된다.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관점이 분명해야 한다. 세상에 이렇게 남자가 많아도 내 남편은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내 와이프는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듯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많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는 한 곳이고, 세상에 목사님들이 많지만 내게 말씀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신앙생활, 축복받는 삶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 자세와 태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런 사상이 분명할 때, 그의 예배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그리고 사람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며 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견인해가기 시작할 것이다. 말씀이 끌고 가는 복된 인생이 열릴 것이며, 마침내 참된 인생의 변화를 만족할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변화와 축복 - 교회중심**

신앙의 결론은 변화이다. 변화가 무엇인가? 변화는 열매로 표현될 수 있다.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것이 변화이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서 예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앞에 떨어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가?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

라. 오늘날과 같이 전화기만 열면 설교가 막 튀어나오는 시대 살기 훨씬 이전을 한번 추억해보라. 그때, 믿음 좋은 분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했는가? “너는 교회 가서 살아가, 너는 목사하고 결혼해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 한마디로,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광신자같은 표현 비슷한 말을 들었음을 기억한다. 때로는 예배중에 불신난편의 손에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망했는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믿음생활 하다가 광신자처럼 정신이상자가 되어 버리고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 죽도록 주님의 교회 위해 충성하고 자기 삶보다 늘 먼저 교회를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본다.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운

는 가계에 집원을 했던 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훗날, 그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그를 위해 살았는가?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로서 교회를 섬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노벨상을 받은 것도 상관없다. 오직 한가지,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것은 어찌 하던 주안에서 영적으로 승리가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에 벽돌 한장이라도 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며, 교회와 목사님께서서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큰 행복과 기쁨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평생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을 것이다.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 말세의 때를 지나는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 복된 생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도의 마음에, 목사의 설교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마침내 그 성도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말씀의 능력이 그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강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설교자의 한가지 의견(Just his opinion)으로 듣게 될 때, 말씀 속의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구글(google.com)의 메시지보다 더 신뢰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은 수동적으로 받음에 비해, 구글의 정보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더 긴요하게 여길까? 말씀이 절대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말씀은 들었는데, 삶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혹여 어떤 가운데, 지금 섬기는 교회를 세상에 유일한 교회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내게 말씀 주시는 그 목사님은 영의 양식을 주시는 영적아비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그 말씀의 엄위로 온 권세 앞에 귀를 열게 될 것이

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러한 열매 있는 신앙의 좋은 변화는 한가지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롯이 듣는 것이다.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은 세상천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고장난 나침반처럼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신론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교회중심, 목사님 중심**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말씀을 주의 종에게 일정하게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았다. 삶의 간증거리가 풍성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공급받는 통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말씀의 권위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삶을 변화시킬만한 동력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해도, 거의 변화를 보기 어려운 일상의 종교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예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

것을 본다.

게다가 믿음 좋은 분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직분까지 맡고 나면,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즉, 교회 장로가 됐다든 것, 그 말할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교회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로 와서 잠을 자고, 자신의 집 굴뚝에 연기가 나기전에 목사님 맥의 굴뚝에 연기가 나는가를 먼저 살피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온 것이다.

게다가 교회가 필요하다면, 내 생명같은 재산도 아까울 것 없이 드리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 그런 경우, 당대에는 물질로 인해 힘이 들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은 왜 그런 변화를 보지 못할까? 교회중심, 예배중심, 목회자 중심의 분명한 사상이 없는 이들이, 교회에서의 명예를 너무 쉽게 구하고 찾았음은 아닌지 모르겠다.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에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잘 되는 데는 무조건 생명을 걸어야 한다. 영적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땅의 삶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던지, 어


**한결같은 예배자리**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 40주년을 기념해서 최고의 공로상을 줄 분을 찾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개척때 부터 지금까지 3대가 교회에 충성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분들이라고 한다. 왜 그러셨냐고 여쭙어보니, 딱 한마디를 하셨다. “목사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다. 주님앞에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분,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다. 그분의 소감은 무엇인가? 그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따라오며 그 말씀을 들었더니, 자신의 평생에 복이 임했고,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해 더욱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평생 다닐 교회로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몇대를 거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좋은 직장도 내려놓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주의 종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사상을 말하면 평영뿔한 답이 돌아온다. “목사님, 내가 왜 저사람들의 아비입니까? 각자 하나님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목사는 목사고, 성도는 성도이지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하마스는 어떤 단체이며 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미치에서 이희은

**이스라엘의 전쟁**

**A:**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을 벌이는 수니파 근본주의자들로서 가자지구와 웨스트 뱅크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두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자지구와 서안 지역인 웨스트 뱅크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원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다는 과격파요 웨스트 뱅크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온건파들입니다. 이 두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4가지로 봅니다. 첫째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과 종교 증오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악의 축으로 여기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이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그들은 땅을 이스라엘에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오스만 터키가 장악했던 팔레스타인 땅이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영국이 펠포어 선언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정착촌을 형성하며 살아가도 좋다는 선언 이후에 '두 민족 간에 긴장이 커집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이 3000년 전 다윗 시대부터 조상들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후 70년 이후에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디도에 의해 110만명이 죽고 전 세계에 흩어진 후로부터 그 땅에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발포어 선언 이후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얻어 살고 UN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자치 국가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UN은 그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를 인정하며 살라고 했으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셋째는 현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설 자리를 잃고 임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평화조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고도의 정치 방해 공작으로 이번 공격을 한 것입니다. 남부 이집트는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요르단은 1994년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와 평화조약이 맺어지지 않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공격한 것입니다. 넷째는 미국의 중동장악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시대는 중동장악력이 매우 컸는데 바이든 시대는 약해졌습니다. 그 틈새를 노린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시 122:6절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동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전이 일어나면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단체가 공격해오고 전쟁에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가자지구를 정복하다가 많은 군인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스라엘인이 가장 많이 죽는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었기에 쉽게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나타나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기에 하마스를 전멸시키기 위해 지상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그런 이해들로 인해 누가 손해를 보는가?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손해가 된다. 성도는 자신들을 위해 목숨바쳐 목양해 줄 목자를 만날 수 없고, 목자는 남남처럼 서먹한 관계로 목회생활을 연명한다. 게다가 어떤 젊은 목회자는, 목자는 유인하신 예수님 뿐이고, 모든 목사는 양몰이 개와 같다고 한다. 굉장히 평생을 다닐 교회로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몇대를 거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좋은 직장도 내려놓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주의 종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사상을 말하면 평영뿔한 답이 돌아온다. “목사님, 내가 왜 저사람들의 아비입니까? 각자 하나님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목사는 목사고, 성도는 성도이지요”

가기에 적절한 처소가 있다면, 옆이든 코 닿을 곳에 말씀 듣고 예배드릴 그런 곳만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고, 참된 노년의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강조한다. 연세가 드실수록, 내 장래위원장 목사님이 누굴까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민교회를 보면 장례식할 때 너무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하다보니 장례예배 순서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세월이 갈수록 마지막이 점점 좋아지는 Finish Well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무엇보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게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 분명해야 한다. 이땅위의 모든 생 예수 믿고 예배드렸던 그 교회는 무슨 의미일까? 평생, 마지막 손발을 움직이고, 지팡이를 짚을 힘만 있어도, 교회근처에 쪽방이면 어떤가? 예배드리러

davidnje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동행 정신(同行 精神)

세계가 다시 어수선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부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혼란해진 세계에 직격탄을 날린 격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1:25,26). 그러나 사람에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지 않으셨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이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없는 평등을 주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계명(誡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계명인 까닭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살인 즉 사람을 죽이는 일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명분에도 살인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다.

투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와 헌신을 중시하는 아프리카 전통의 윤리 사상이자 평화운동의 뿌리가 되어 타인과 내가 얽혀 있다는 유대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비심,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관용 정신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말이다. 글로벌을 입에 담은 이라면 그가 누구고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 이 우분투 사상을 기억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동행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은 동행이 아니다. 이 동행에는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세는 네 원수를 사랑하려고 가르치셨다. 뿐만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5:39-42)고 말씀하셨다.

못한 기갈이라”(암8:11)고 말씀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경교가 무섭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적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쫓 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11:6-9)는 말씀이 이 세상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바로 동행 정신이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 정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우분투의 대의와 상생의 동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록적 가뭄' 닥친 아마존, 수위 121년 만에 '최저'

기록적인 가뭄이 닥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중심부의 강 수위가 1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브라질 아마존나스주 마나우스항이 운영하는 네그루강 수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네그루강 수위는 13.59m로 기록됐다. 이는 1902년 마나우스 항에서 네그루강 수위를 기록한 이후 1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최저 수위는 2010년 10월 24일에 측정된 13.63m였다.



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이슬람국가(IS) 출신을 자처하는 신원불명의 남성이 총격을 가해 스웨덴인 2명이 사망해 테러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홍콩에서는 종교 관련 범행에 대비해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헤트 라스테 신문 등은 16일 오후 7시 15분쯤 브뤼셀 도심 생크테레트 광장 인근에서 한 남성이 한 건물의 입구로 뛰어 들어가 가가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스웨덴 국적자 2명이 총격을 당했고, 택시기사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는 처음에 두 발을 쏜 뒤 이후 세 발, 건물로 뛰어 들어가면서 두 발, 건물을 나가다 다시 돌아와 한발 등 모두 8발을 쏘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인근 주민들에게서 입수된 영상에는 형광 주황색 재킷과 흰색 헬멧을 쓴 한 남성이 스쿠터를 타고 접근한 후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용의자는 총격을 가하기 전에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한 목격자는 현지 언론에 말했다. 범인은 범행 후 도주했고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용의자는 45세의 튀니지 출신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범행을 자처한 이는 SNS에 올린 영상에서 “IS에서 온 알라를 위한 전사”라며 “스웨덴인 3명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격으로 사망한 두 스웨덴인은 스웨덴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축구팬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의 여파로 이날 열린 벨기에와 스웨덴의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예선 경기도 전반만 치르고 중단됐다.

산타 헬레나 두 잉글레스의 마을 리더인 넬슨 멘돈사는 “일부 지역은 여전히 키누로 접근할 수 있지만 많은 보트가 물품을 운반할 수 없게 돼 대부분의 물품이 도보 등 다른 경로로 운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마을이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나스주에 따르면 이날까지 직·간접적인 가뭄 피해를 본 주민 숫자가 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벨기에 당국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테러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렸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웨덴 총리에게 오늘 브뤼셀에서 일어난 스웨덴 시민들에 대한 참혹한 공격에 조의를 표했다”면서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공동된 싸움”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 수십년 만에 가장 위험... IMF·WB는 대체 뭐하냐”

세계 경제기구 수장과 재무장관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잇달아 경고하고 나섰다. 15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근해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새로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공 부채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제이 방가 WB 총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내전과 함께 회의 성과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갈등이 지역 전체로 확대되면 우리는 엄청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지난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더해지며 에너지 및 식량 시장, 국제교역, 지정학적 관계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세계는 현재 아마도 최근 수십년 새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IMF·WB 연차총회 이후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들이 발표한 성명에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세계 금융 지도자들이 마비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 G20 관계자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논란이 많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로 땅굴 500km... 지상전 맨이후도 막대한 피해 각오해야”

이스라엘군(IDF)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해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하면 막대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마스는 IDF의 월등한 군사력에 맞서 방대한 땅굴을 이용한 게릴라전과 곳곳에 설치된 지뢰로 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IDF는 민간인 사이에 섞인 하마스 무장 세력을 상대하면서 뺨뺨하게 들어선 건물, 지뢰, 터널로 이루어진 ‘지옥 같은 덩굴’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IDF에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가자지구 진입 작전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하마스가 파놓은 최대 500km 규모로 추정되는 땅굴이다. ‘가자 지하철’로 불리는 이 땅굴은 깊이가 40m에 달하며 곳곳에 지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마스는 지하터널 네트워크를 통해 수년 동안 총기부터 전자 장비 등을 밀수해 왔다”며 “땅굴을 통해 반입된 물자를 이용해 수천개의 로켓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마스나 병사 대 병사로 싸워야 한다”며 “하마스는 매우 효율적으로 시가전을 펼칠 것이며 이미 지상 침공에 충분히 대비했을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전투 헬기의 공중 엄호를 받고 장갑차와 자주포를 앞세운 IDF의 막강한 화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프네 리치몬드 바라크 이스라엘 라이히만대 교수는 “땅굴에선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IDF의 첨단 군기술은 땅굴을 꿰고 있는 하마스와의 정보 비대칭 앞에서 단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CNN에 경고했다. 케네스 프랭크 매켄지 전 미 중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은 지저분한 시가전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나나 재벌’ 에콰도르 35세, 세계 최연소 대통령 당선

두 달 전 대선 후보가 총격으로 피살된 에콰도르에서 35세 다니엘 노보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 세계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젊은 ‘최연소 대통령’이다. 바나나 판매로 막대한 부를 쌓은 ‘바나나 재벌’의 아들인 그는 최악의 치안 위기를 겪고 있는 에콰도르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1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97%가량 이뤄진 가운데 국민민주당(ADN) 소속 노보아 후보가 52.1%, 시민혁명운동(RC)의 루이사 곤살레스(45) 후보가 47.9%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노보아 당선인은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이자 세계 최연소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21년 국회의원 당선 후 불과 2년 만에 대권을 잡았다. 노보아 당선인은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 있을 것 같지 않은(improbable) 정치 프로젝트를 지지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국가에 평화를 되찾고 젊은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며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과 부패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나나 재벌”로 알려진 알바로 노보아(72)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노보아 전 의원은 유명 과일 브랜드 ‘보니아 바나나’와 비료, 플라스틱, 판지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부를 쌓았다. 현재 수습계국에 128개가 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노보아 전 의원은 과거 다섯 차례 대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이 때문에 외신들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에콰도르 대선은 탄핵 위기를 맞은 현 대통령의 조기 퇴진 결정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지난 8월 야당 ‘건설운동’ 소속 페르난도 비야베센시오 후보가 고향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치러졌다. 비야베센시오는 코카인 밀수 마피아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가 대선을 2주 앞두고 사망했다. 노보아 당선인은 전날 결선투표를 할 때까지도 방탄조끼를 착용했다. 치안 불안 해소와 함께 경제난 극복도 당면 과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 빈곤율은 30%에 육박하며 국민의 34%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다.

브뤼셀서 총격에 스웨덴인 2명 사망... IS 출신 범행 자처에 “유럽 충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무슬림)를 향한 범행이 이어지





#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4)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 II. 청교도 개인 언약 (Personal Covenant before God) (2)

영국 케임브리지의 리처드 심스(Richard Sibbes, 1577-1635)는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인 폴 배인즈(Paul Baynes; 1573년-1617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다. 그리고 심스를 통해 회심한 청교도들은 존 카튼, 리처드 백스터, 존 프레스턴 등이 있다. 심스는 프레스턴과 함께 설교 사역을 통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리처드 심스는 영국 국교들의 많은 박해 속에서도 칼빈주의와 퍼킨스 전통을 청교도 신학에 확고히 심어주었고, 특별히 개인 언약을 통해 영적 개혁 운동을 확산시켰다.

심스는 개인 언약을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했다. 17세기 화란에서 시작된 알미니안 사상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했다. 1618년 도르트 회의(Synod of Dort)가 소집되어 칼빈주의 사상을 확인했지만 알미니안 사상의 논쟁은 영국에서도 계속되었다.

심스는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All is of grace, and all cometh from Him.") 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죽게하시므로 언약의 기반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심스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약의 반응은 인간 스스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결과이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다" 주장한다. 심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신앙의 열정에는 성령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스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한다("The Spirit always stirs up an Amen on our parts). 그러므로 성령께서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아멘, 주여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응답한다. ("When the Spirit saith Amen, it shall be so, then the soul saith, Amen, Lord, let

it be so").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시고, 언약관계로 이끄신다. 나아가서 성도들의 성화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한다.

심스는 개인 언약 사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성화의 삶에 대한 책임을 주장한다. 심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동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Though God's grace do all, yet we must give our consent). 물론 이 동의는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공로가 된다면 알미니안 사상이 되는 것을 심스는 잘 알고 있다. 인간의 동의지만 이 동의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적 동기로 나타난다. 심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논리를 적용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교리는 옛날이나 지금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심스는 "언약에 대한 응답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주장한다. 은혜에 대한 응답의 준비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all preparations are from God. We cannot prepare ourselves or deserve future things by our preparations; for the preparations themselves are of God").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항상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다. 교부시대에는 이 문제는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정리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합동하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소위 반펠라기우스 주의 (semi-Pelagianism)가 되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반펠라기우스 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음을 주장했다. 청교도들은 칼빈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굳게 서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개인 언약 사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성화를 이루게 했다.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존 카튼(John Cotton, 1582-1652)은 인간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카튼은 영국의 박해를 피해 1633년 뉴잉글랜드(보스턴)로 이주했다. 카튼은 케임브리지에서 퍼킨스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고, 리처드 심스를 통해 회심의 체험을 했고, 그의 사역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존 카튼은 퍼킨스, 심스, 프레스턴, 그리고 보스턴에서 사역한 카튼과 동일한 시기에 뉴잉글랜드(코네티컷 주를 세웠다)에서 사역한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 1586-1647)와 다른 각도에서 은혜 언약에 대한 강조했다. 동시에 카튼은 성화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했다.

카튼의 은혜 언약의 개념은 1636-37년 사이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반율법주의(Antinomianism)" 논쟁을 살펴보면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1634년 카튼을 따라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이주한 앤 허친슨(Anne Hutchinson)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앤 허친슨은 1636년 가을, 매사추세츠의 청교도 목사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개인의 선행에 의존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청교도 목사들은 개인의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회심과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허친슨의 비난을 부인했다. (Good works are evidence of conversion and salvation, not the grounds of salvation).

앤 허친슨은 보스턴 청교도 목사들은 율법주의적 도덕과 윤리를 마치 구원의 근거처럼 설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Bay Colony)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존 윈드롭(John Winthrop)은 앤 허친슨의 주장을 비판했다. 결국 앤 허친슨은 매사추세츠 법정에서(General Court)에서 재판을 받았고, 1637년, 그녀는 "반율법주의자(Antinomian)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매사추세츠에서 공식적으로 추방(banishment) 당했고, 보스턴 교회에서 파문 당했다.

앤 허친슨은 이 재판에서 청문회 둘째 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she claimed on the second day of her hearing that she possessed direct personal revelation from God)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she prophesied ruin upon the col-

ony). 매사추세츠 법원(General Court)과 보스턴 교회에서는 앤 허친슨이 반율법주의(혹은 율법폐기주의)자로 정죄하였고, 결국 그녀는 추방되어 로드 아일랜드로 이주했다. 앤 허친슨의 영국에서 보스턴까지 이주한 이유도 존 카튼의 신학과 설교 때문이었다고, 반율법주의 논쟁에서도 허친슨이 존 카튼의 설교를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 카튼 목사도 반율법주의자라고 오해를 했다. 그리고 허친슨이 보스턴 청교도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설교하지 아니하고, 율법 중심의 행위언약만 설교한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존 카튼의 말을 많이 인용했다.

존 카튼은 "은혜 언약의 조건성과 성화(율법 중심)를 통한 구원의 확신의 강조는 은혜 언약의 중심인 그리스도로부터 중점을 놓친다" 했다. 그러나 앤 허친슨의 반율법주의 논쟁을 겪으면서, 존 카튼은 은혜언약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의 입장을 바꾸게 된다. 카튼은 자기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했다. 그는 "은혜 언약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언약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지,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다." ("The children of the covenant of grace are free from the covenant of the law but not from the commandment of it"). 존 카튼의 이러한 진술은 지금까지의 청교도들의 개인 언약 사상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존 카튼은 은혜언약의 중심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한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은혜의 조건은 있을 수 없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어떤 은혜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 수 없다." ("For by faith of dependence it is, that we first received union with Jesus Christ, But there be not gracious conditions wrought in us before we received union with Jesus Christ). 당시의 청교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한 인간의 준비에 대해 많이 설교했다. 그러나 존 카튼은 인간적인 준비를 인정하지 아니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은혜언약의 핵심으로 가르쳤다.

물론 다른 청교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성화를 보고 자신이 은혜 언약에 있음을 확증하라고 주장했는데, 존 카튼은 인간에게 나타난 성화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도 명확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께 합당한 한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화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율법에 순종하려는 나의 공로와 노력의 성화인가? 물론 다른 청교도들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

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에 많은 청교도들이 은혜 언약의 중심에서 성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카튼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오는 복음적인 성화와 자신의 힘으로 나오는 율법적인 성화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카튼은 율법적인 성화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카튼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 주장했다. 그리고 "나의 성화를 가지고 내가 은혜속에 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나의 성화는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성화가 될 수 없다." ("I cannot prove myself in a state of grace by my sanctification: For while I cannot believe that my person is accepted in justification, I cannot believe that my works are accepted of God, as any true sanctification").

존 카튼이 다른 청교도들과 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상은 칼빈, 퍼킨스 그리고 다른 청교도들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카튼은 다른 청교도들보다 은혜언약의 일방성(unilateral)과 주권성(sovereignty)을 더욱 강조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성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언약의 핵심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강조했다. 은혜 언약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성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다. 자신의 성화를 바라보라고 하면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바라보라고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튼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앤 허친슨이 "반율법주의 논쟁(Antinomian Controversy)"에서, 보스턴의 다른 청교도 목사들은 은혜 언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행위 언약을 전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스턴의 청교도 목사들은 영국의 신앙의 박해속에서 개인 언약을 강조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면서 설교했다. 그러나 청교도 목사들이 율법주의적 행위언약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조점이 달랐다. 존 카튼은 성화를 통해 자신이 은혜안에 있다는 증거는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성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성화를 바라보고 보다는 성화의 근원이 되며, 성화를 가져다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

KHL0206@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451-0391, www.nasungbible.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사주든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사주사리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hk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명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토),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bhcc.org / www.bh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사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세계선교회</h3> <p>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저녁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388-1927 / www.wjcc.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h3>실비치 사랑교회</h3> <p>(Seal Beach Sp-Ri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8, Ce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사역원</h3> <p>원장: 박순송 목사 (LA 복음선교회총회총무)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화인도 여성리더 사역: 1. 복음선교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토),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714)446-6202,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강화: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청년/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주요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YM 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일 예배: 오후 8:00(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히슬스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영성경이 읽히지않" 오전 9:30 오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염려하지 말라(Don't Worry)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염려를 하지 않는 분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열이면 열 다 염려를 하면서 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마 6:25)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안전과 건강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과 몸이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염려가 점점군이나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 교통사고 자연이 오염되어 버린 지구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나 몸이 얼마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나 하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서 매일매일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행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만이 행복하리라." 염려는 오늘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해로운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염려가 점점군이나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 교통사고 자연이 오염되어 버린 지구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나 몸이 얼마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나 하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서 매일매일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행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염려는 해봐도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마 6:27) 염려는 마치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보십시오. 웬! 웬! 소리는 요란합니다. 엔진은 나 죽는다고 돌아갑니다. 기름은 펄펄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는 한 치도 안 움직입니다. 예니지만 소비합니다. 소음만 요란합니다. 염려가 꼭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염려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나 염려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입니다. "티테디오스"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한 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자 염려가 다 날라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니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하고 이름을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린 솔로몬이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시 90:10)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인간됨의 실존이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날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헨리 나우웬이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후시라는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후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라는 말입니다. 후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조지 무러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 주셔서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염려 없이는 도무지 아무를 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마는 "티테디오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염려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여 염려에서 자유 함을 받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2)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같이

고국을 떠나 제 2의 나라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만큼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합법적인 체류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혼자되어 생활비 해결뿐 아니라 아들 하나를 정성껏 길러 보자고 밤이 맞도록 일하지만 심대로 막 들어선 아들에게 세상의 험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오면 아들을 반기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밖으로 나오라고 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망설이지만, 핑계될 게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셔'라고 하며 거짓말이라도 하고 거절하면 좋으려만, 한번 두번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독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때 힘겹게 살던 엄마에게 한 남성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혼인 수속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의 불법체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듯합니다. 남성 쪽에서는, 장성했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한국으로 떠나보내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젠 그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면 아들을 보러 갈 수도 있으니 문제가 아닐 것 같아, 남성이 원하는 대로 어렵사리 아들을 보냈지요. 아, 그런데 남성의 마음 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이 상황은 안타깝게 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배우자 후보를 찾은 듯 행복해 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특별히 혼인을 통해 체류문제가 해결될 듯하다 곧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고난의 현장 속에 홀로 있는 것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를 헤아리며 성경적 못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을 거슬러 천성을 향해 거룩과 순결을 지켜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위에서 보기에 훨씬 고귀할 듯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확립을 통해 이 세상을 당당히 살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귀하지 않을까요.

또한 다른 면을 살펴본다면, 어떤 동료 싱글들은 배우자를 얻은 뒤 함께하는 것에 대해 위축감을 느끼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오로지 거룩을 향해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한다면 자녀들에게도 자부심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2-14).

한부모 모임 인도자 분들께서는 참석자들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거룩하여 구별되게 살다가 천국에 이르러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and Hawaii.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지금 이 어느때나?

마지막 때가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마 24:3-14과 눅 21:10-11과 막 13:5-8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눅 21:11의 세계적인 전염병(온역)이 등장하고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나타나되 계 9:14-15엔 중동지역의 유브라테 강에서 사람 1/3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것이 큰전쟁으로 확산될까봐 세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창 5:21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아들 므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노아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는 사건은 우리들이 이런 마지막 심판의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는 "창던지는 자"란 뜻인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므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 그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즉, 홍수 심판이 임하던 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해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5:25에 보면 "므두셀

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창세기 5:28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탄생할 때 므두셀라의 나이는 187+182=369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11에 "노아 600세 되던 해 이월 곧 그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탄생할 때 므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으니 여기에다 노아 600세 되던 해를 합치면 969세 즉, 므두셀라의 나이 969세가 되던 해 그가 죽던 해가 바로 노아홍수가 터진 해입니다. "므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은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sign 므두셀라를 받고부터 그의 삶은 심판을 의식

한 삶, 자신을 돌아보는 삶,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 경건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 신앙인 것입니다. 그는 들림받은 순간까지 자신을 세속에서 지키고, 자기 자녀들을 지키며, 타락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갖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였습니다. 에녹의 경건한 삶은 자녀들을 흥수직전의 타락한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바로 에녹에게는 최선의 선교지였습니다. 약 1:27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경건했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웠고 이 경건이 300년동안 생애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다가 유다서 1:14-16을 보면 에녹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예언자적인 삶

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걸고 불의에 항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녹의 경건한 삶은 바로 65세에 하나님께서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아들 "므두셀라"를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sign을 보고 깨어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성결한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내게 속한 자들을 깨우며 살리는 삶, 자녀들을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며, 죄악의 문화에 대해 난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경건했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웠고 이 경건이 300년동안 생애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다가 유다서 1:14-16을 보면 에녹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예언자적인 삶

songpak@hotmail.com

월드쉐어 USA 후원의 밤

주사랑나눔여성합창단 창단 음악회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 후원의 밤이 10월 21일 저녁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린다. 종합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한 월드쉐어 USA는 주사랑나눔여성합창단(지휘: 문혜원, 이하 나눔 합창단)을 창단하고 음악회를 준비해 왔으며 창단 발표회와 함께 월

강태광 목사는 "올봄에 창단된 나눔 합창단은 각 교회에서 섬기대로 활동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구성된 선교 합창단"이라고 소개하며 "월드쉐어USA는 이번 후원의 밤 행사의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드쉐어USA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고통의 소식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호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 미 기간시설과 생활 현상이 파괴된 지역의 주민들 생활은 무너졌고 심각한 상태다. 겨울을 지내기 위해 더 많은 지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 돕기 성금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키치 목사와 루미니아 난민 사역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다. 나눔합창단 문혜원 지휘자는 "창단 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 단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좋은 음악회가 될 것이라



나눔합창단 창단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 왼쪽부터 박진 단원, 문혜원 지휘자, 고은경 회계, 신혜영 반주자, 김현아 반주자

"LA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특별한 음악회"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들 돕기 성금으로

드쉐어 USA 후원의 밤으로 진행한다. 지난 11일 강태광 목사는 기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나눔 합창단의 창단 소식과 월드쉐어 후원의 밤, 윈드쉐어 사역 소식을 들려주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전쟁이 발발한 지 20개월이 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수많은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을 낳았다. 이 전쟁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구호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월

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런 상황을 매일 전해 들는 강태광 목사는 합창단 리더십과 의논하여 나눔합창단 발표회를 갖기로 결정했고 본 행사의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민습니다"라고 말한다. 윈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10월 21일 밤은 나눔 합창단이 준비한 음악으로 아름다운 가을의 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밤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

의 참석을 당부 했다. 한편 윈드쉐어 USA는 이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윈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의 신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을 증정한다. 또한 국제 아동 구호활동을 위한 후원을 위해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산책과 신약 인문학의 판매 부스도

준비할 계획이다. 주사랑나눔여성합창단 발표회 및 윈드쉐어 USA 후원의 밤에 관해서는 강태광 목사(323-578-7933), 또는 문혜원 지휘자(213-453-8690)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8 columns listing churches: 갈보라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안인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일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저지초대교회, 가을 축제

뉴저지초대교회와 mosaic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한 가을 축제를 10월29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오후5시까지 본교회 교육관 주차장에서 열고, 이웃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한다. 예수님의 생애, 기적, 비유의 스토리도 준비된 트렁크 Station을 돌며 재미있는 활동과 Treat를 받게된다.

▲ 문의: 201-767-0400

## 뉴욕권사합창단, 제 20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제 20회 정기연주회가 10월22일(주일) 오후 6시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된다.

▲ 문의: 917-648-1876, 917-658-3181

## 프라미스교회, 엠브렐러에듀 성경적 성교육세미나

프라미스교회 학부모 교육팀 엠브렐러에듀에서 10월20일(금) 오후 8시, 10월21일(토) 오후 7시, 10월22일(주일) 오후 1시30분에 이진아 전도사(남가주 다음세대지킴이 대표)를 강사로 성경적 성교육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최형석 목사 617-433-0996, 김주현 집사 646-76-1793

## 프라미스교회, 국악선교단 정기공연 찬양대축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는 국악찬양선교 이사회의 후원으로 국악선교단 정기공연 찬양대축제를 10월29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한다.

▲ 문의: 노선숙 권사 917-929-7923

## [PA] 영생장로교회,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임직예배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10월22일(주일) 오후 4시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임직예배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본교회 제1예배실에서 열린다.

▲ 문의: 215-542-0288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 34회 정기총회

## 회장 박병섭 목사·부회장 김지희 목사, 김신정 전도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 34회 정기총회가 10월 16일(월) 오후 6시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열려 예배와 회무 시간을 가졌다.

박병섭 목사(부회장)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김경수 목사(중경회장) 기도, 김정미 전도사(서기) 성경봉독, 정인수 목사(회장) 설교, 이원호 목사(중경회장)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인수 목사는 '나를 보시는 주님 (마 14:22-33)'이라는 제목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거센 풍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약함을 본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신다. 믿음은 나의 의지대목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

고 붙잡아주시니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라"고 전했다.

이어 정인수 목사 사회로 시작된 회무는 서기의 회원점명이 있은 후 의장 정인수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각 부서의 보고를 받은 뒤 관례에 따라 중경회장 이원호 목사가 입후보자를 발표했으며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 박병섭 목사, 부회장 김지희 목사, 김신정 전도사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박병섭 목사는 "부족한 저를 한 회기의 회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동문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세워 주시고 힘주시니 최선을 다해 한 회기를 이끌고 가겠

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신임부회장 김신정 전도사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인사했으며 전행복 목사(협동총무)의 광고와 박병섭 목사(신임회장) 기도 후 폐회를 선언했다.

(홍현숙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 34회 정기총회 후 사진촬영 했다

# 새한장로교회, 담임목사 위임 및 원로목사 추대예배

##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새한장로교회는 이은우 담임목사 위임 및 고택원 원로목사 추대예배를 10월15일(주일) 오후 4시 본교회당에서 드렸다.

고택원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임수병 목사(노회부서기, 사랑의교회), 살롬찬양대 찬양, 설교 윤상철 목사(양의문교회)로 진행됐다.

윤상철 목사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딤후 4:7-8)"라는 제목을 통하여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라"고 권했다. 또한 "시종일관 믿음의 달리기를 잘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인앞에 침지기로써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전했다.

2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필라노회 위임국장 고택원 목사 인도로 위임목사와 교인 서약이 있은 후 위임국장 고택원 목사의 취임기도와 공포가 있었으며 고택원 목사가 교회열의를 증명했고 방오남 권사, 민용숙 권사가 위임목사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명했다.

이은우 목사는 "지난 28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기게 하신 것은 새한장로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다. 지금까지 훈련되고 교육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새한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

름답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지역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2부 담임목사 위임식에 이어 3부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추대식을 가졌다.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추대식은 필라노회 부노회장 김성철 목사 인도로 추대사 이종진 장로, 고원택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새한장로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본교회의 원로목사가 된 것을 김성철 목사가 공포한 후 이은우 목사가 추대패를 증명 했다.

이날 고택원 목사는 "자신에게 하는 중요한 7가지를 내 자신을 알라, 인생은 짧다, 심은 대로 거둔다, 환경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정적이 최상의 정책이다. 마지막은 끝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교인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기쁘게 목회를 해 왔다"고 답했다. 이날 최상경 목사(빛과 소금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새 담임 이은우 목사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을 졸업했다. 베델한인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부목사(행정)로 사역했다.

(홍현숙 기자)

# 뉴욕기독교교회, 고성민 담임목사 취임예배 및 형제교회 결연

##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이 달려가자"

뉴욕기독교교회는 고성민 담임목사 취임예배 및 형제교회 결연식을 10월15일(주일) 오후5시 본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고성민 목사는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 여러분은 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기대한다.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오르막길을 같이 달려가자"고 권했다. 또한 "부족한 것 많은 종이니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 보람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1부 예배는 강상균 목사의 인도로 T&O 찬양팀, 기도 송인규 목사(미동북부지방 선교부 총무, 뉴욕한인제일교회), 성경봉독 정철호 목사(한국, 천안기독교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설교 고신일 감독(한국, 기독교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성민 취임 목사 부친인 고신일 감독은 '존귀(Noble) (이사야 32:8)'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분향으로 둔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존귀한 사람답게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 서로가 격려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며 "담임목사는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는 담임 목사를 귀히 여기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취임식은 김성철 목사(미동북부지방 감리사, 뉴욕성문교회) 인도로 취임목사와 교인 문답이 있은 후 김성철 목사의 선언이 있었으며 이철운 감독(미주지역연회 감독, 퀸즈교회) 영상 축사를 전했고 백성화 전도사와 백성중 청년이 특별찬양을 했다.

3부 결연식은 고성민 목사의 인도로 고신일 감독(한국, 기독교교회), 정철호 목사(한국, 천안기독교교회), 이혜광 목사(미국, 밴쿠버기독교교회), 고성민 목사(미국, 뉴욕기독교교회)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목회협력 및 교류로 세계 복음화와 교회 부흥에 기여하고자 형제교회 결연을 체결했다. 이어 이혜광 목사(밴쿠버기독교교회)의 축사, 이정운 사모의 바이올린 특별연주가 있은 후 조성호 장로의 광고, 고신일 감독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모든 통역은 Dan Ko 전도사가 담당했다.

(홍현숙 기자)



뉴욕기독교교회 고성민 담임목사 취임, 형제교회 결연 체결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찬양대축제 모든 순서자들이 다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다

#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제20회 찬양대축제

##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월드밀알선교합창단(단장 이다니엘) 제20회 찬양대축제가 10월 15일(주일) 오후 7시 카네기홀에서 열렸다. 월드밀알은 9.11 사태로 혼란한 시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다. 최고의 찬양을 위해 전 출연진이 금식과 기도로 찬양대축제를 준비하며, 카네기홀에서 2002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을 제외하고 매년 찬양대축제를 열었다.

1987년 설립이후 35년 동안 찬양사역의 길을 걸어온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은 찬양대축제를 위해 세계각지에서 모였다. 연합 월드밀알선교합창단과 월드밀알어린이합창단이 월드밀알심포니오케스트라의 반주로 무대에 섰다. 그리고 전통적인 월드밀알핸드벨과이어, 그리고 기타와 드럼 그리고 키보드 등을 이용한 현대식 월드밀알위시퍼스 등도 연주로 찬양했다.

교회 찬양대로는 뉴욕갯세마

네교회 합창단이 섰다. 이지용 목사는 교회를 소개했으며,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데 쓰임을 받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월드밀알은 이다니엘 단장과 이다윗 목사, 그리고 각 지부의 지휘자들(김유진, 조성식, 박소영, 기수지)이 지휘를 했다. 그리고 합창 속에 소프라노 유경화와 이애실 등이 독창을 했다.

월드밀알핸드벨과이어는 월드밀알을 26년을 섬기다 이제 는 자녀와 함께 섬기는 임원의 지휘와 지휘로, 뉴욕갯세마네교회는 김일식 지휘자의 지휘로 찬양이 드러졌다. 또 게스트로 시각장애인 피아노 연주자 박해림의 독주와 소프라노 안수경 교수의 찬양이 진행됐다.

모든 순서자들이 한자리에 찬양을 했으며, 메시아 할렐루야로 공연을 마무리하며, 신나고 즐거운 경배와 찬양을 하며 내년 만남을 약속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10월 부흥성회**

1(주일) 오후 2(월) 오전 3(화) 정오 4(수) 오후 5(목) ~ 6(금) 8(주일) 저녁 9(월) 오전 9(월) 오후 9(월) ~10(화) 11(수) 저녁 13(금) 오전 14(토) 오후 15(주) 저녁 17(화) 오전 18(수) 오전 19(목) 오전 20(금) 저녁 22(주) 저녁 23(월) 오전 23(화) ~24(수) 오후 26(목) 오후 28(토) 30(월) 오전 31(화) 새벽 오후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김포 강림교회(조경숙목사) 010-8222-1992  
 세계 청소년 마약감시단 (World Drug Watchdog) 서울대회 (대회장 홍성선 목사) 010-9977-5606  
 컨테일모사 Meeting Ceremony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전남 광주 빛교회 (김선주 목사) 010-3145-6682  
 주회 : 한기여총 (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서울 풀이있는교회 (김용복 목사) 010-7291-0291  
 서울 서초 Unit and Core 기도성회 주회 : Tent Makers Mission (대표회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박성은 목사) 정기노회 장소 : 서울강남세곡교회 (박익서 목사)  
 서울 주안양복음교회 (이은혜목사) 010-8215-8295  
 서울 능력선교교회 (임은선 목사)  
 대한민국 국교회 (이수용목사) 국회구국기도회 010-2508-3344  
 장소 : 여의도 컨벤션호텔 청국청  
 서울연도회관 주회 : 국제전부흥사역(이장정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1  
 세계 여성지도자 정책심포니 (World Women Leaders Policy Symphony) (대표교문 정상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장소 : 서울 Press Group Center  
 District Office Passport Issuance  
 군포 돌민동산교회 (이세환 목사)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목사) 010-8331-3431  
 대전 중앙장로교회 (김성순 목사) 010-7291-3377  
 분당 할렐루야교회 (정승욱 목사)  
 서울 삼각산선지주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010-3709-4968  
 남경산 기도원 (원장 김대성 목사) 주회 : 한국기독교부흥사 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경성 목사) K Blessing MT  
 세인천중양교회(정사무열 목사)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장소 : 서울 신라호텔  
 서울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http://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캘빈 이 후보를 위한 남가주교계 지도자 초청 기도 모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연방하원 도전 '캘빈 이' 후보를 위한 기도모임 "기도의 사람이 의회에 들어갈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미 연방 34지구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캘빈 이 후보를 위한 남가주교계 지도자 초청 기도 모임이 10일(화) 저녁 6시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 LA 구국재단-성령애국집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성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모임은 최영봉 목사의 대표기도, 강순영 목사의 환영인사와 모임 취지설명, 테너 양두석, 소프라노 정원혜 씨의 특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민중기 목사가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다윗(삼하 5:6-10)'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중기 목사는 "정치가 중에는 한번 쓰임을 받고 마는 자가 있는 반면 계속 쓰임을 받는 자가 있다. 다윗은 세 번 기름부음을 받았다. 한번은 가족 중 사무엘에게서,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지파 중심으로 왕으로 인정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헤브론에서 북쪽 지파가 모두 내려와 12지파들에게 인정받을 때"라고 말했다. 민목사는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함락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생각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빼앗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국의 서부지역

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도 뚫고 들어갈 틈이 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졌다. 캘빈 이 후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기도의 사람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하며 선거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 메시지가 마친 후 캘빈 이 후보의 출마선언과 교계지원 요청, 이우호 목사의 캘빈 이 후보를 왜 지지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우호 목사는 "점점 도적적, 신앙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아메리카의 영적 재건을 위해 캘빈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워싱턴으로 보내 정치혁신을 이끌고 영적 재부흥을 위해 이룩해야하며 그러므로 남가주교계가 연합하여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기도도 후원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기도순서에서는 샘 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박세현 목사가 '동성애와 평등법 반대'에 관하여, 조한영 목사가 '휴리스 대책과 해결'을 위해, 신연화 집사가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기도'를 했다.

(박준호 기자)



백동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다음세대와 함께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지난 5일(목)부터 8일(주일)까지 나흘간 백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를 초청 '다음세대와 함께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사 32:15)는 주제로 추계부흥성회를 비전센터에서 가졌다. 7일(토) 집회에서 백동조 목사가 '성령의 날개로 비상하라(사 32:15)'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백 목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침내 때가 이르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하며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 있는 요긴한 인생으로 회복된다. 광야는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영향력이 없지만, 아름다운 밭은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면 가꿀수록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름다운 밭은 영향력이 한 가정이나 한 마을

정도는 기를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면 숲의 영향력은 한 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감성적 임재는 가변적이다. 감성적 임재는 주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임하게 된다. 누구든지 감성적 임재가 임하게 되면 교회가 그리워지게 되고 예배가 그리워지며 찬양이 그리워진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성적 임재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백동조 목사는 이번 추계부흥성회기간 동안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라'(왕하 5:1-14),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사수하라'(왕하 2:9-10),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요 1:1-6), '와 어떻게 이런 일이?'(단 2:46),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신 14:22-23), '재정회복'(말 3:1-10)등의 말씀을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코너스톤교회 첫 예배 30주년 감사예배 "주안에서 모든 교인들을 통해 선한영향력 퍼지길"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첫 예배 30주년 감사예배가 15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종용 목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코너스톤이 빌립보교회처럼 시작되었다. 비전이라는 포장에 나 자신의 야망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코너스톤이 시작되었다"며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백투더베이직'으로 결정하고 기분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전 예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것, 성도와 관계, 그리고 세상 사람과 관계 등 4개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코너스톤교회 첫 예배 3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교인들이 주안에서 선한영향력이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학 간사의 QTN눔과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김미셀 집사가 기도했으며 찬양대 찬양과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구성된 유스그룹의 바다위십이 있었다. 이어 이종용 목사가 잠언 9장10절과 시편 119편을 설교했으며 이종용 목사와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How Great Thou Art'을 부른 뒤 이종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12일(목)부터 전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와 목회자 부부를 초청하여 성도들에게 간증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나누는 '2023 커넥션'을 시작했으며 18일(수) 오후 7시 30분에 커넥션 파송예배가 드려졌다.

(박준호 기자)



코너스톤교회 첫 예배 30주년 감사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쉴비취한인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가나안교회에서 열렸다

### 쉴비취한인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백경환 성가의 밤으로 열려

쉴비취한인합창단(지휘 백경환 목사) 제11회 정기연주회가 14일(토) 오후 4시 가나안교회(담임 임동운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백경환 목사가 작사작곡한 찬양곡을 부르는 백경환 성가의 밤으로 진행됐다. 백경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작곡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연주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구 단장의 인사말과 임동운 목사 개회기도로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혼성합창단이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도신경',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등을 불렀으며 남성합창단이 '나 때문에'와 '우리는 부름 받은'을 불렀다. 또한 소프라노 이영주와 테너 전승철이 찬조출연하여 이날 정기연주회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 사우스베이목사회 10월 정기예배 및 친교 나눠 "소명 의식을 갖고 문학이 사역이 되게 하라"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고창현 목사) 10월 정기 예배 모임이 지난 11일(수)오전 8시 산성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있었다. 고창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윤 목 목사(한인소망교회)가 대표 기도를, 고창현 목사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약 5:7-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목사는 "내가 어렸을 때는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자랐는데 성장하면서 많은 체험도 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 '버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인내하고 버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재림에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신앙인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며 추수의 날을 기다리려 참 성도의 자세임을 선언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위하여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과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함축하여 기도한 후에 윤석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성화장로교회 찬양콘서트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시월의 어느 멋진 그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여기에!'라는 주제로 찬양콘서트를 20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이번 콘서트는 이은수 목사, 정종원 목사, 지명현 목사, 조영석 목사, 김진수 집사가 출연한다. 또한 본교회는 성동진 내과와 함께 11월13일(월) 오후 7시 '이 계절에 이 사랑을'이란 주제로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콘서트를 갖는다. 지명현 목사 초청 콘서트는 소프라노 양유진이 찬조출연하며 이동진 목사가 5분 메시지를 전한다.

▲ 문의: (213)447-3118

#### 남가주사랑의교회 장학생 선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23학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2023년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및 타 커뮤니티의 학생으로 현재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진학예정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미국 내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직인 신학생, 해외 선교사의 자녀이다. 신청마감 10월30일, 결과는 11월30일에 발표하며 장학금 수여는 12월17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하게 된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사랑장학회 홈페이지(www.kdsfsarang.com)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문의: KDSF@sarang.com

#### 새로운교회 설립감사예배 및 설립부흥회

새로운교회(담임 박찬길 목사 3407 W.6th St. #416, LA, CA) 설립감사예배가 22일(주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설교는 김영현 목사(전 서울연회 감독)가 하게 된다. 한편 본 교회 설립부흥회가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부흥회 강사는 권오성 목사(인천큰빛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0일(금) 오후 7시30분, 21일(토)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22일(주일) 오전 10시이다.

▲ 문의: (213)505-4630

#### OC제일장로교회 선교부흥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 선교부흥회가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KAPC 파송선교사 조영훈 목사이며 부흥회일정은 20일(금) 오후 7시30분, 21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2(주일) 1, 2, 3부 예배 (3부 예배는 EM, Youth와 연합)이다.

▲ 문의: (714)899-9191



OC한인교회 가을말씀부흥회에서 정주성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OC한인교회 가을말씀부흥회 "광풍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가을말씀부흥회 마지막 날 집회가 지난 8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이날 오전 9시45분 남성수 목사 인도로 시작된 2부예배는 박영환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날 부흥회 강사로 초청된 정주성 목사(나무교회 담임)가 '내 마음의 건망증(막 4:35-4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주성 목사는 "본문에 광풍 앞에 예수님은 배개를 베고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성경은 극단적 상황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왜 예수님이 폭풍이치는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라 질문한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주시기 위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드셨다. 잠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문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꾸짖으신 것"이라 말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광풍이 부는 현장에서 믿음이 있음을 가르쳐주시고 안전할 수 있다. 어떤 광풍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광풍 속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광풍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남성수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정주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 10월 정기모임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념케익을 커팅식을 하고 있다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 칼럼과 논평을 담은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군포제일교회 담임 권태진 목사의 칼럼과 논평을 담은 신간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출판기념회가 11일(수) 오후 7시 30분 본 교회에서 열렸다. 출판 기념회에 앞서 최귀수 목사(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드려진 감사예배는 김인기 목사(군포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대표기도, 박종호 목사(안양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성경봉독, 김만형 목사(분당 친구들교회 담임) 설교, 송태섭 목사(한교연 대표회장)

축도로 진행됐다. 김만형 목사는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디모데후서 3:14~17)라는 제목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배움이 중요하다. 배움이 있어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확산 가운데 살 수 있다. 그 배움은 성경에서 가능하다. 악한 세대 속에 든든히 서서 건강한 인성을 살려면 열심히 배우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열심히 먼저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움은 바로

사람이다. 혼탁한 사회에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바른 가치관을 전달해 줄 사람을 만나 배움을 얻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는 배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설교했다.

이어 신수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부목사)의 사회로 출판기념식이 진행 때, 정인찬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가 격려사를, 정서영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박명수 교수(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가 축사를 각각 전했다.

저자 권태진 목사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를 가슴에 안고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탄식할 때마다 써내려간 문장들"이라며 "우리는 불변의 진리와 진실이 승리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권태진 목사는 현재 군포제일교회 담임,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저서로는 시집, 설교집, 에세이 등 총 4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 "북한 선교 방법 무궁무진...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어요"

#### 기성 '제1회 북한성결교회 재건대회' 개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임석용 목사) 북한선교위원회(위원장 김학섭 목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제1회 북한성결교회 재건대회'를 열고 은평성결교회와 같이 북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의 사례를 나눴다. 기성은 서울신학대 기독교신학연구소를 통해 해방 전 북한에 있던 성결교회가 82개라는 것을 확인하고 남한 성결교회와 결연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50개 남한 성결교회가 결연을 마쳤으며 통일 후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중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중소형교회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북한선교 모델이 제시됐다. 황해남도 문화성결교회와 결연한 충남 예산 둔리성결교회(주재규 목사)는 교회 시설 대여료를 북한 선

교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회 예배당과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타 교회가 수련회를 하기 위해 종종 찾아오는데 이때마다 차곡차곡 모은 수익금이 올해만 800만원이 넘었다.

주재규 목사는 "우리는 작은 농촌교회이지만 북한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대학교 북한선교 동아리 학생들을 무료로 초청해 격려하는 사역도 하고 있다"며 "담임목사가 먼저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이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면 모든 교회가 북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성결교회(유승대 목사)는 2016년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소속 성도들은 탈북민 지원 단체인 서울서부하나센터를 꾸준히 찾아

가 탈북민과 교제했고 설날과 추석 때마다 선물을 들고 가정 방문했다. 또 그들이 한국과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남한 성도와 일대일 매칭해 가족처럼 돌봤다. 그 결과 소문을 들은 탈북민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박준성 은평성결교회 집사는 "권사님과 매칭이 된 탈북민 가정의 아이가 '남한 할머니가 생겼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며 "북한 선교라는 게 진척이 안 될 때도 있고 열매도 많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계속 탈북민을 보내주시는 게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 참좋은교회(나대현 목사)는 결연한 함경북도 서수라성결교회를 재건할 때 대안학교를 겸한 예배당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 직 후엔 콘크리트 등 공사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컨테이너를 활용한 교회 건축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교회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성 교회재건소위원장은 "북한 교회와 결연한 교회들은 정보기도, 재건 자금 준비, 통일 일일 양성 등 세 가지 플랜을 통해 북한 선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며 "이 재건대회가 기성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과도 함께 동역하며 북한을 위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도행전'으로 서핑 탈까? 한국교회 '말씀 대장정' 시작

####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말씀 네트워크 목회자 콘퍼런스' 개최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분당채플 만남의광장. 서울·경기권 지역 90여명 목회자들이 11개 조로 흩어져 사도행전 1장 1-11절을 본문으로 '프로페자'(설교를 위한 말씀나눔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었다. 윤희철 사랑교회 목사의 인도로 F그룹은 3분간 본문을 묵상한 내용을 나눴다. 강병희 영성교회 목사는 "성령행전"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철저히 예수님을 기반으로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룬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원규 백석교회 목사도 솔직하게 묵상한 걸 나눴다. 그는 "그동안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제 생각을 첨가해 받아들이는 게 많았다. 목회 현장에서도 예수님 뜻이 아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묵회하지 않았나 싶다"고 털어냈다. 이에 대해 다른 목회자들도 공감하면서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말씀을 삶과 목회에 바르게 적용하기로 다짐했다.

지난달 프로페자 인도자를 위한 콘퍼런스에 두 차례 참석한 윤 목사는 많은 유익함을 누렸다고 했다. 그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마라톤처럼 외로움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 다른 목회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감사하

다"며 "위로와 격려, 설교의 영감까지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그룹을 인도한 윤신애 천안 늘푸른초장교회 목사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마치 선교 무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이전보다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복음주의권의 올림픽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40주에 걸쳐 같은 본문으로 공동 강해 설교를 진행하는 말씀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준비위·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이날 '말씀 네트워크 목회자 콘퍼런스'를 열고 말씀 운동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이재훈 은누리교회 목사는 오전 강의에서 "복음주의는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중요성,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우른다"며 "한국교회가 로잔운동을 통해 세계적 이슈에 응답하자"고 권면했다. 준비위 말씀네트워크 지도목사인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는 스위스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가 주창한 프로페자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목회자들이 설교의 통찰력을 얻을 뿐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는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수능 D-30 '성큼' ...슬기로운 수험생활 여기에

#### 수능기도 책자 만들고 QT영상·간식 제공해

D-30.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가 수험생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능기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중보기도와 간식 배달, 100일 큐티(QT·말씀묵상) 영상 공유 등으로 수험생 응원하는 대열 선봉에 섰다. 특히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자칫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기 쉬운 수험생들이 신앙

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독려하는 노력이 눈길을 끈다.

서울 소망교회(김경진 목사) 수험생 30여명은 최근 교회 측으로부터 '2024 수능기도 책자'를 받았다. 책자에는 수능 당일까지 40일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과 함께 필사 공간이 마련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등 책자 속엔 수

험생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경 구절이 빼곡하다. 응원 메시지도 담겼다. 교사들은 손수 편지를 썼고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도 함께 실렸다. 이 교회 수험생 담당 교역자인 임준모 전도사는 "광야를 걷고 있는 기분이라고 고백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다"며 "고난 앞에 한계를 느끼는 수험생들이 책자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일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수험생활을 위로하는 교회도 있다.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교사들은 수능 100일 전인 지난 8월 8일부터 수험생에게 매일 문자로 4분 분량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험생 100일 QT 영상'을 보내고 있다. 유튜브 영상에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고등부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 등이 함께 출연하고 있다.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뜻대로 안 될 때 좌절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도와달라" "여러 생각을 하느라 불안하다.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점검한다"는 등의 댓글로 은혜를 나눴다.

### 기감, 시대 변화·교회 현실 반영해 법 뜯어고친다

#### 개척교회 기준 낮추고, 청장년회 연령 상한 높이고

예배당 공간을 여러 교회가 나눠쓰고, 단독 목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공동 목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감리교에서 전격 도입될지 주목된다. 또 교회 설립 기준 교인수와 청장년선교회의 연령 상한선도 완화하는 등 쪼그라드는 교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도 관심거리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단 헌법(장정) 개정안 나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고성 소남캠프 펠피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제35회 임법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6일 공개된 장정 개정안에 따르면 교회 개척 시 필요한 등록 임교인 수 기준이 현행 12명에서 5명으로 완화된다. 현행 장정대로라면 임교인 12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개척교회의 목사는 사역하지 않는 무직

상태로 간주된다. 기감 목회자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교역자로 사역하지 않으면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다. 임법의회에 올릴 개정안을 추리는 장정개정위원회는 '실제로 개척할 때 교인이 없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근 들어 새로운 목회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공동목회·공유교회의 길이 열릴지도 관심을 끈다. '담임자의 파송 및 공동목회'와 관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회 필요에 따라 연회가 결의하면 공동목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제34회 임법의회가

허락한 공유교회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다. 공유교회는 하나의 예배당 공간을 여러 교회가 나눠쓰는 제도다. 현행 장정은 공유교회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연회 내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연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북한이탈주민·조선족·고려인·다문화인 교역자에 한해서만 연회와 무관하게 공유교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규 기감 총회행정부 부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 임대료 문제를 겪는 교회가 많아진 가운데 공유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교단 안에서도 증가 추세"라며 "큰 교회들이 탈북자 다문화 등 특수 목회자들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 거룩한 습관을 지닌 젊은이가 되라

(2면에서 계속)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지금은 몇 년이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이 결심은 바뀌지 않았고 평생의 습관에 굳어졌다. 경건의 습관에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아는 지식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무력무력 성장했다.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나는 주일학교와 주중 성경공부에도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거기서 나는 성경 연구 방법을 배웠다.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성경 속 핵심 책에 관해서 배웠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제자 삼는 방법, 소그룹을 이끄는 방법 등 실용적인 신학까지 섭렵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삶의 주요 습관으로 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디모데후서 2:22을 보라.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

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경건한 덕을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혼자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격려한다. 요점은 명확하다. 경건한 신자들과의 교제를 타협하지 않는 습관에 힘입어 나는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 이 되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라일의 권고에 더불어 덧붙이는 내 간증에 여러분이 현명하게 귀를 기울이길 기도한다.

#### 젊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라

지금까지 말한 습관들이 대단히 심오한 통찰력은 전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에게 불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을 복잡하게 만들 실 리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다루시며 우리가 성장하도록 때에 맞게 먹이

신다. 라일이 젊은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초대 교회 신자들이 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행 2:42).

내 인생을 변화시킨 라일의 이 책을 처음 읽었던 때는 그가 죽은 지 백 년이 훨씬 넘었을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UCLA의 세속 교실에 앉아있는, 막 구원받은 도시에서 자란 한 소년을 제자로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라일이 쓴 정교한 글을 통해서 나를 빚으셨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백 년 더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당시의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권면 받아야 하는 수많은 젊은이로 여전히 넘칠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힘을 합쳐 귀한 젊은이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부르는 일에 함께 충성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by Bobby Scott, desiringgod.org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0)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선교는 전쟁입니까?

평화를 선포하는데 왜 전쟁 용어를 쓰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선교사들에게 도전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다. 선교를 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선한 세력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과의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개인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크게는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서로 다른 견해들은 복음주의적 선교관, 진보주의적 선교관, 오순절주의적 선교관으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선교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된다.

진보주의적 선교관은 복음을 직접 전해서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관심 보다는 사회정의, 빈곤해소, 환경개선, 사회구조의 변경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영역이며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종종 평화와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며 종교 간의 대화,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룹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육과 사회사업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 해방신학과 같은 급진적인 투쟁으로 나선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신앙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여 선교가 개인

구원과 신앙 중심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사회주의적으로 과도한 편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신앙 전파와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해 버릴 우려가 큰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을 상대화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데 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극히 위험한 견해로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에서 떠났거나 선교 활동과는 관계없이 벗어나 있어서 선교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편으로 오순절적 선교관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여 영적 성장을 강조하며 영적전쟁을 수행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 기도와 찬양은 선교활동의 핵심으로 나타난다. 개인과 집단이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에 미션을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영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미션 활동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초점을 성령중심에 놓음으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모든 일이 항상 이런 결과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관심은 때로 거짓으로 포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이단성을 가진

소수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과거 역사를 보여준다. 이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방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또한 성령의 도움과 은사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히려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해서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비판을 듣는다.

그러나 오순절적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지 않고 선교의 돌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선교사들의 고백인 것을 숨길 수 없다. 수많은 희생적인 인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 복음이 미전도종족에게 전해진 사례는 없다. 성령은 선교사들을 부르고 능력을 임하시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전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적 선교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항상 있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기존 질서에 도전적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선교를 문화 침략으로 보고 지역 문화를 파괴하거나 희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교는 종종 현지 신앙과 충돌을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서구식민주의와 함께 나갔던 일부 선교활동이 강요나 압박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적인 선택이 보장되지 않을 경

우 이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문화주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다른 신앙과 문화를 무시하거나 비방할 수 있다는 비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선교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문화와 신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가지며 오히려 다문화주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 증가하는 다문화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라는 것이 그 증거이다. 선교사들은 다른 신앙과 문화를 조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와 문화 간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다. 선교활동을 통해서 종교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종종 다문화주의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즐기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선교 활동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노력을 한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선교활동을 개선하고 다문화주의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다. 선교활동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복음주의적 선교관은 선교사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소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가고 함께 동역함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이해이다. 선교사와 교회는 복음의 전파가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는 말로 복음을 전파하며, 직접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또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받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과 배려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선교사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온라인과 미

디어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 문학과 음악, 모든 예술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과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의 자원을 끊임 없이 제공하고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

선교사는 교회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새로운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거나 강화함으로써 교회의 성장을 도모한다. 현대의 선교 상황이 많은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믿는 무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선교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는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통해서, 예배 및 교육 활동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교회의 리더십을 지원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주 주의해 할 것이 있는데 선교사의 존재가 기존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사회봉사 및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교회의 목표와 가치를 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 상황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가 대 사회적 책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선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발하여야 할 영역이다. 직접적인 복음전파만이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대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극단적 견해의 영향이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교회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 의도적 교회 비난 세력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성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 봉사를 하는 비영리단체의 85%는 기독교에 바탕을 둔 단체들이다. 이런 사실들은 언론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나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한국사회에 알려진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교회 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노력을 항상 경주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편한 상황을 즐기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문화권과 함께 하는 것은 초 대교회에서도 어려운 문제였다. 선교사가 그 본을 보이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과 성숙해 가도록 안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선교사의 역할은 기도와 영적 지원자가 되는 일이다. 선교사는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든든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영성 패턴을 만들어 가야하고 성숙한 제자도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로 기억될 것인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선교사는 교회의 비전과 전략 개발에 참여하며 경험을 통해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선교사 만큼 그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한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운 교회가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할 지를 걱정하고 비전과 전략 개발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선교사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나간 영적 군사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전쟁을 맞겠다고 비난할 사람들이 많겠는가. 끊임없는 나와의 영적 전쟁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쟁에 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기억하며 함께 싸워 이기자. 오늘도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Jesus, No Other Name!

dr.yongcho@gmail.com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 29강복된 땅, 가나안 (1)

우리는 젃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출 3:8,17, 13:5, 33:3/ 레 20:24/ 민 13:27, 14:8, 16:14/ 신 6:3, 11:9, 26:9,15, 27:3, 31:20/ 수 5:6)를 '축복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고 '부족함'도 '영려'도 '격정'도 '근심'도 없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젃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풍성함'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젃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의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반복되는 '범외'와 '징계', '부르짖음' 그리고 '회복'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젃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복된 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정리

가나안 땅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가치'고, '더 누리'고, '더 즐기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복'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모양 저모양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건 강하고 더 사업이 잘되고 자녀들이 더 잘되길 바라다면 역시 그런 복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삶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축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시 67:6,7, 134:3/ 사 65:16/

렐 34:26/ 학 2:19).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복'을 받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받았지만(창 27:18-29) 그의 인생이 결코 복되지 않았습니다(창 29:21-34:31).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계 6:24-26/ 신 8:2,3,16/ 렐 31:23)(참고. 렐 32:39-42).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곁하여 주시지 않습니다(잠 10:22).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2,3)고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넷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느니라(갈 3:8,9)고 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복, '복음'이며 그 '복음'이 영적인 복이 되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행 3:25,26)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 3:16)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가지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갈 3:8). 둘째, 아브라함이 '복'이 된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의 복'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창12:3, 18:18, 22:17,18) 그의 자손(창 26:4, 28:14) 곧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질 것입니다(마 24:14, 28:19/ 막 13:10, 16:15/ 눅 24:47/ 행 1:8/ 골 1:23).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롬 1:2).

'복의 개념'이 달라지면 '복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familyfa@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말씀 묵상의 결과 (호9:1-17) 찬 546장

성경이 정말 기이한 것은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며 성경과 친밀한 관계로 영혼이 밝아지고 힘을 얻음으로서 세상의 보화보다 더 나은 가치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작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게 된 이스라엘은 절망의 노선을 걷다가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1-7) 둘째, 그 참상 원인은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7-8) 선지

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풀려지고, 풀려지면 적용할 바를 알게 됩니다. 엠마오 제자의 뜨거운 체험이나 바울의 분별하는 체험은 모두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일은 성경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이며 말씀과의 친밀한 증거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에 나온 시인의 무수한 말씀 체험이 내게도 일어나도록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 화 회개의 기회 (호10:1-15) 찬 327장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는 지금이라고 한 것처럼(12) 선자가 회개하여 은혜받을 때는 바로 "지금(now)"이라는 기회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3)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2)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외세로부터 패망을 당했습니다. 악을 밟았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원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군사와 전략을 더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떻게 회개하나

요? 이런 불신앙적 패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은 땅을 기경하듯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갈 때 의의 소나비가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의가 인정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의만이 율법의 의에서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받을 만한 때에 믿음으로 마음을 주께 토하는 참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 수 두 마음 (호10:2) 찬 449장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근본 죄, 외식을 어떻게 다루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두 마음 품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재의 중심이며 전인의 좌소인 마음이 "영혼" "속사람" "영" 그리고 "중심"으로 표현한 성경은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호세아 시대의 문제도 여전히 그 마음 상태에 놓은 것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이 더럽혀져 이중마음을 가진 외식자가 된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재리의 유혹, 일락 그리고 근심에 사로잡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주께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제단을 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장소, 제단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신이 받으실 영광이 다른 것에 돌릴 때 가차없이 제하심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애굽의 중앙에 성소를 두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 19:19) 이 놀라운 사랑에 꼭 빠져 그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시다. (롬 12:1-2)

## 목 불붙는 사랑 (호11:1-12) 찬 310장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맹렬한 이유는 그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준비된 사랑입니다. (1-3)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의 사랑은 애굽과 가나안 7족속에서 구원하시므로서 준비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창세 전, 사랑의 대상으로 택할받은 그리스도인은 최고 최대의 준비된 사랑을 받은 대상입니다. (엡 1:3-4) 둘째, 불붙는

사랑입니다. (8-9) 천인공노할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불붙기 때문에 맹렬한 진노를 다시 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10) 그 사랑은 아예 하나님만을 자원해서 사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신자는 그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금 의가 매마른 세대 (호11:12-12:14) 찬 523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선 곧,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표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3절에 호세아의 메시지는 야곱의 역사를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니엘에서의 사건을 통해 보여준 그의 탐욕의 껍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벗겨진 것처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제합니다. (갈 2:20)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사랑의 몸에서의 자유가 오직 그리

스도의 십자가 공로임을 알고 그를 찬송하며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인애와 정의를 바라며" (6) 라는 말씀대로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의 죄는 피상적이 아니고 근원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버리고 탐욕이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 의가 물결치게 하는 것입니다.

## 토 고난이 주는 유익 (호12:1-14) 찬 487장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 죄는 야곱의 탐욕주의였습니다. 그 야곱에게 주어진 은혜처럼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첫째, 고난을 통한 영적 변화가 허락되었습니다. 야곱이 압박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울며 회개한 일이나(4-5), 야곱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당한 일련의 고난으로 변화된 것처럼(13) 그들은 앗스르의 큰 고난의 구덩이에서 탐욕이 부서져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탐욕이 주님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6)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절기에 하던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 성도가 고난당할 때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기이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유익을 경험합니다.

# 교회음악 이야기(45)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 시편 150편

수년 전 일부 크리스천 그룹에서 유행된 첫 머리 글자 어(두문자어)를 팔찌나 목걸이 혹은 스티커와 포스터, 심지어 자동차 범퍼 등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려하고 그분을 위해 순종함으로 주님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의 두문자어 입니다. HWJW (How would Jesus Worshi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셨을까? 오늘날, 특히 코비드 이후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예배 형태가 나타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가 위와 같은 질문을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을 잘 발견하여 실천하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롤모델이자 멘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헌신적이고 규범 있는 예배자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변함없이 성전과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요 4:23-24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두가지 사실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빚대어 필자는 다른 두문자어 하나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HWJP(How would Jesus Praise -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찬양하셨을까?)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대두되는 비본질적 요소들이 오늘날까지도 끈임없이 찬양하는 예배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속 선율의 차용, 악기사용, 다양한 장르의 사용 범위 문제 등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찬양의 본질적 요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정작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입니다. 음악의 미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술적 아름다움에만 심취되어지는 심미주의(Aestheticism), 또한 그 예술적 도구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려는 나르시시즘(Narcissism) 등은 특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온전한 찬양을 하려는 예배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HWJP-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찬양하셨을까?를 가슴에 되새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찬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마 26:30절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입니다. 이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 가장 깊은 고뇌와 번뇌에 빠져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 최악의 고통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쉽게 찬미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을 독려하시면서 시편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조건

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내면에서 깊은 소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바른 찬양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찬양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제시하고 가르치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된 찬양들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근본적인 목적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표현하거나 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시편 마지막 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Where)에서 찬양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1절). 성소, 권능의 궁창-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What)을 찬양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2절).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하나님의 창조, 구원 및 보존의 섭리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전개 과정 중에 보여주시신 크신 권능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How) 찬양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3-5절). 관악기(나팔)와 현악기(비파, 수금) 그리고 타악기(소고) 등이 총동원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악기들을 총동원하라는 의미이지만 내 삶의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Who) 찬양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6절). 즉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악기를 연주함은 물론이고 온갖 지평의 담긴 영혼의 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멋진 시편의 종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본질입니다.

스코틀랜드 소요리 문답에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 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 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자신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울이 받는 빛은 거울이 주는 빛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내면에 우리는 그 기쁨을 맛껏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특히 시편의 내용을 총 총 합하는 150편이 주는 바른 교훈입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오늘의 모든 예배자가 시편 찬양을 통해 맛껏 하나님을 높이며 그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Hallelujah!)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앳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4. 아버지의 정체성과 변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아버지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회사와 가정에서 소외당한 아버지들은 유혹업소에서 신세를 한탄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취한 발걸음처럼 이 시대 가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997년 IMF사태는 가부장적 가정들에게 일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양육과 교육, 가사는 아내의 일이고, 자신들은 돈만 벌어야 된다고 믿었던 가정들은 '명퇴(名退), 조퇴(早退), 황퇴(黃退), 동퇴(凍退)' 등을 겪으며, '고개 숙인 남자'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아버지의 문화를 다시 정립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해택은 없고, 상실만 커지는... 아버지는 변화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가정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 1. 자발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 믿을 내려다보듯 호령하던 아버지가 아닌,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마음을 열고 터놓고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아버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 4.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를 꾸준히 개발하라.

여행, 요리, 영화, 연주회, 운동, 산행, 낚시, 테니스, 독서 등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생활문화를 꾸준히 개발하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5. 새로운 가족관계를 위한 재훈련과 교육을 받아라.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모임'의 창립회장이며, '남성학 연구회장'인 정재기 교수(강원 관광대

새로운 가족관계를 위한 재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

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누군가가 가장 역할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가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확산되면서 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아버지'라는 공식이 유효했던 것은 경제력과 사회적 민주성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로 인한 남녀평등, 여성상위 운동의 확산,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여성의 고학력과 경제력 증가로 인한 이혼률의 급증 등으로, 21세기 새로운 가정의 형태가 급변하여 아버지의 새로운 정체성과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와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인정하고, 가족구성원들의 도움을 바라기 전에, 먼저 아버지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자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 2. 아버지(남성)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왜곡된 아버지(남성) 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아버지 자신임을 깨닫고, 음주, 도박,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출, 불륜, 폭력, 폭언 등으로 오염된 아버지(남성) 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 3. 대화의 소통에 힘쓰라.

교육학과)는 아버지(남성)의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근대 이후 남성이 입었던 무거운 갑옷을 스스로 기꺼이 벗고, 이전에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던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을 정식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위기'는 전세계적인 고민으로 1996년에는 세계 40여개 국의 관련 장관들이 모여, 아버지의 위기문제를 논의한 결과, 결국 현재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국내 남성계와 여성계 모두가 공동으로 제안한 해결책도 "새로운 가족관계를 위한 재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결혼교실, 부부 세미나, 가정세미나,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의 재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처럼...



(burning bushing)등을 비롯해 각종 꽃나무들도 아주 곱게 곱게 가을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돌봄이 없었는데도 아름답게 장식되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 아침에 한 잔의 커피를 기울이며 이렇게 고운 가을옷으로 갈아입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야 세월이 흘러가는 흐름에 맡겨야 하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인생은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처럼, 그렇게 곱게 물들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면에서나 결코 추하지는 말아야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며 예쁘게 물들어 있는 이 가을처럼 저 자신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물들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 5:15-18)."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지난 9월 초, 교단의 여러 모임이 있어 한국을 향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저희 정원에 심겨진 나무 위로 가을이 한발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 달 만에 시애틀로 돌아오니, 어느새 정원 곳곳 나무 아래까지 가을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뒤뜰 정원에 심겨진 블루베리를 비롯해서 단풍나무는 물론 불타는 부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미얀마

▲ 종족명 까난 종족

▲ 인구 9,000명

▲ 종교 불교 85%, 민속 종교 10%, 복음화율 5%

▲ 복음 매체 성경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필 주로 반마옥 지역에 살며 가까운 마을에 사는 종족 내 교류가 활발하며 결혼도 많이 한다. 까두 종족과는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유사하다. 미얀마의 다른 종족 전도인들이 까난 종족 사람들에게 와서 전도와 봉사 활동을 해왔다.

▲ 기도제목

- 1. 까난어로 된 말씀이 전해지는 길이 열리도록
- 2. 복음을 들은 까난 종족 사람들에게 회심이 일어나도록
- 3. 까난 종족 내에서 활발하게 교류할 때 복음도 함께 퍼져나 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칼리한인장로교회

청년부 및 행정담당 풀타임 사역자 청빙

지원 자격:

- 1. 청년부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 2. 정규 대학과 미국장로교(PCUS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3.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 4. 나이 30대

제출 서류:

- 1.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문
- 2. 최근 설교 (CD, DVD, Web Address)
- 3. M. 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
- 4. 추천서 2통

접수 마감일: 2023년 10월 31일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이상현 목사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퀸즈장로교회설립 50주년  
KAPCQ 50th Anniversary

## [뮤지컬 예배]

다민족 연합 찬양대, 교회학교 연합 합창단,  
청년 드라마팀, 특별 무용팀 등 400여명 이상 출연

# THE WAY

## [ NEHEMIAH Rebuilding the Ruins ]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세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일생을 노예로 보내야 했던 히브리인들.  
주의 날에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그 노래는  
두고 온 고국을 그리워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성전을 간구하였던  
느헤미야의 꿈이었으며 미국으로 이민온 우리 1세대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신 길 되신 예수님  
느헤미야 때부터 2023년 오늘까지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길 **THE WAY**  
뮤지컬 예배로 하나님에게 올려 드릴 그 감동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10. 29. (SUN) 5PM. 2023**  
Tilles Center (LIU POST, 720 Northern Blvd, Brookville, NY 11548)

**예약 문의: (718) 886-4040**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은혜 받아 충성하며 걸어온 길도  
비전 받아 전진하며 나아갈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전진 | Advancement

비전 | Vision

충성 | Loyalty

은혜 | Grace

